

스리랑카 학술답사기



글·사진=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2세기 파라크라마바후 왕이 세운 갈 비하라 석불군 중 열반상.

인도의 눈물 스리랑카, 사람들 마음에는 佛陀의 후손이란 자부심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 중점연구소에서는 1월 22~29일 스리랑카로 불교유적지와 근대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학술답사를 다녀왔다. 일본 불교 전공자로서 서남아시아 불교권에 첫발을 내딛는 필자의 감흥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비로소 일본의 중단불교가 큰 범요행사 때마다 스리랑카 스님들을 모시고 빨리어로 시작하는 연유를 알게 되었다. 쇠퇴한 인도불교의 대리자로서, 살아있는 초기불교로부터의 정통성을 스리랑카 불교에서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나나 다를까 일본의 스리랑카 불교에 대한 연구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미술을 비롯해서 민속학 또는 문화인류학적 측면, 정치권력과의 관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연구단체는 아직 걸음마에 불과했다.

콜롬보에 도착한 우리는 다음날 스리랑카 최초의 왕도였던 아누라다푸라로 갔다. 불교의 역사를 시대의 흐름은 물론 지리적으로도 내려오면서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이곳은 북인도로부터 이주한 싱할라인들이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수립한 고대도시로 기원전 380년 판두카바야 왕이 수도로 삼은 곳이다. 하지만 역사서인 <소사(小史)>나 <대사(大史)>에 신화와 전설로 전해지는 건국의 역사를 부처님 열반의 해인 543년으로 보는 것은 스리랑카인들의 심상(心相)에 새겨진 불타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드러내며, 불국건설에 대한 열원을 강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이 스리랑카를 3회 방문했다는 전설에서는 살아 있는 불타의 숨결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하는 스리랑카인들의 열망이 담겨 있음을 본다.

스리랑카의 불교전래는 기원전 3세기 전륜성왕 아쇼카 왕의 자녀들에 의해서이다. 아쇼카 왕은 인도 통일 후 무력에 의한 정복을 그만두고 불교의 전파에 노력했다. 총 9차례 중 마지막으로 스리랑카에 파견된 아들 마힌다 장로는 기원전 247년 데와남피야 티사왕에게 불교를 전했다. 마힌다의 언덕이라는 뜻의 마힌탈레 유적이 그곳이다. 또한 딸인 상가미타 비구니는 인도 붓다가야에서 보리수를 가져왔다. 스리 마하 보디라고 불리는 이 보리수의 원줄기는 잎이 무성한 후손들과는 달리 2000여 년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가는 줄기를 지니고 있어 금박의 반침대로 지지되고 있었다. 주위에 병자를 둔 사람들이 경을 외우며 불력의 가피를 기원하는 눈빛이 선명했다. 이러한 민중의 소박한 기원 위에, 기원전 2세기 국난을 극복하고 건립한 55m의 하얀 루안엘리 세야 대탑이 상징하듯 불교는 이제 국가의 이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됐음을 목격했다.

다음날, 중세에 남인도 출라 족의 침입을 막고 수도를 옮겨 이룬 변영의 도시 폴른나루와로 향했다.

고대불교는 4세기까지 마힌다 장로에 의한 대사파(大寺派)를 비롯해 무의산파(無畏山寺派) 및 기타 림사파와 함께 3개의 종파를 형성했다. 기원전 1세기에는 대사파 스님들에 의해 상좌부 불교의 소의 경전인 팔리어 삼장을 완성했다. 훗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불교의 쇠퇴 후, 11세기 외세를 물리친 위자바야후 1세가 미얀마 스님들을 초청해 다시 스리랑카 불교를 부흥시키고, 12세기 파라크라마바후 1세에 의해 계파간 갈등을 청산, 대사파의 계율을 정통으로 하는 상좌부 불교의 통합을 이뤘다. 이는 주변 국가인 미얀마, 태국 등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후 쇠퇴했다가 18~20세기 태국과 미얀마로부터 회귀한 샴파, 라만나파, 아마라푸라파 모두가 상좌부 불교의 전통을 지닌 것도 이러한 폴른나루와 시대의 개혁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어딘지 모르게 동아시아의 불도인 서안, 경주, 교토와 시공을 초월해 불교를 통한 문화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담블라 석굴사원은 아잔타 석굴이 그렇듯 동아시아 석굴의 원초적인 느낌을 강력히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스리랑카 영육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캔디다. 1815년 싱할라 왕조 2000년의 역사가 영국군에 의해 끝난 곳이기 때문이다. 캔디는 1505년부터 시작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진 4세기

반 동안 식민 통치의 슬픔과 회한을 끌어안은 도시이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진신 치아사리를 모신 불치사는 캔디 속의 캔디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와 국민, 축제와 열광, 소우주와 대우주의 파노라마가 이 불치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한 동안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텔레비전 속에서 보는 스리랑카의 대축제인 에사라 페라헤라가 이 불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페라헤라는 행렬이라는 뜻이다. 코끼리 위에 황금으로 치장한 불치를 올려놓고 양력 7~8월경에 해당하는 스리랑카력의 에사라월 약 2주 동안 열리는 축제는 그야말로 종교와 정치가 견고하게 결합한 권력의 상징이 거리를 누비며, 삶의 현장 속에서 보란듯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국가적 축제이다.

이 불치는 362년 인도 남부 칼링가 왕국에서 보내온 것으로 아누라다푸라에 모셔졌다. 매년 무의산에서 불치제를 올려오다가 1590년 다르마 수라야 1세 왕 때 캔디로 옮겨졌다. 불치는 곧 왕권의 상징으로 불치가 있는 곳 바로 스리랑카의 수도였다. 저녁 무렵, 불치를 보관한 사원의 깊은 중심으로 초대됐다. 악사들의 악기 연주가 요란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특별공개를 선물 받았다. 외경의 마음으로 가슴이 떨리기도 한다. 성현이 사자(死者)가 되어서도 갖는 그 권위는 세속의 권력마저도 승인하는 살아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상상력에 바탕한 권력이 이처럼 성스러운데 기반하고 있다는 것에 절묘한 그 무엇을 느끼게 한다.

사실 정치적 권력은 욕망을 감추거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 종교적 자발성을 잘 발휘한 것으로는 일본 근대의 국체불교(國體佛敎)가 그랬다. 현대국가에서 여전히 정치와 종교의 야망이 결합함으로써 세속에서 촉발된 정교분리의 이념에 장애가 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다. 1970년대 스리랑카 스님들이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에 다소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불교, 나아가 근·현대불교가 처한 상황이 이러한 국가와의 관계에 있음을 스리랑카에서도 확인하게 된다.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그 상징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역시 역사와 문화의 지속성에 연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캔디에서 샴파의 총본산 아스기리아 대정사의 붓다랏카타 대승정을 견경했다. 승려수와 사원수는 아마프라와 9000여 명에 2300여 곳, 라만나파 5000여 명에 1200여 곳에 비하면 샴파는 2만6000여 명에 8000여 곳을 헤아리니 가장 큰 종단의 수장인 셈이다. 대승정은 남북문제에 대해 학자들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를 향해 불교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순례하며 직접 공부

하는 일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기독교, 이슬람과 공존하는 스리랑카의 현실을 염두에 둔 것처럼 한국 불교와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다종교 사회 한국처럼 정도, 포교, 교화라고 하는 이름 아래 종교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야말로 스리랑카에 비하면 소리 없는 종교 전쟁이지 않을까. 소박한 곳에 거주하는 대승정의 모습은 법문을 듣지 않아도 친견하는 것만으로 감동을 준다. 운유하고 순수하고 맑은 스님의 얼굴과 음성이 스리랑카인들을 닮았다. 한국에 온 많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모습이 스님과 겹치는 것은 왜일까?

유서 깊은 페라테니야 대학의 케라윌라 교수의 강연은 스리랑카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었다. 2년 전 종결된 내전이지만 수많은 생명이 살상될 때, 불교계는 어떤 일을 했느냐는 질문을 하고 나서 아차했다. 타밀족과 싱할라족의 전쟁이 종교적인 분쟁으로 비춰진 외신의 전달을 끈끈하게 믿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중에 문헌을 보고 서야 스리랑카 불교계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았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천 곳 중 1위에 등극한 인도의 눈물 스리랑카와의 만남은 자신의 좁은 학문적 폐쇄성으로부터 시야를 무한대로 트게 했다.



기원전 1세기 아누라다푸라에서 쫓겨난 바타가마니 왕이 수도 수복 후 감사의 뜻으로 건립한 담블라 석굴사원.



담블라 석불사원.



시기리아 바위굴전.



시기리아 바위굴전 암벽 천장계의 여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한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한방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방 발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행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궁예양초

① 밀납 아랑 연꽃 양초 7.0 f × 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 f × 18cm	③ 약복 1호 그림 양초 5.9 f × 18cm
④ 약복 아랑 연꽃 양초 7.0 f × 33cm	⑤ 밀납 PC접 초 5.5 f × 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⑥ 한방 금강정 세트 5.9 f × 18cm

한밀납 양초

② 밀납초 90cm × 90cm	② 밀납초 연봉 완가동 7.0 f × 34cm	③ 밀납초 돈타래 5.6 f × 27cm
③ 밀납초 3호 4.7 f × 25cm	③ 밀납초 1호 5.9 f × 18cm	④ 밀납초 2호 5.9 f × 14cm
④ 밀납초 3호 4.7 f × 13cm	④ 밀납초 4호 4.7 f × 10cm	⑤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 f × 10cm
⑤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 f × 13cm	⑤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 f × 14cm	⑥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 f × 18cm
⑥ 밀납초 밀대 전사(반야심경, 연화)	⑥ 밀납초 돈타래 전사(반야심경 연화, 호영이)	⑦ 밀납초 연봉 완가동 전사(반야심경 연화, 호영이)

우창산업 SHC 삼한중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